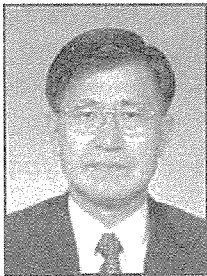


교육으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



최 석 진

국제환경교육연구소 소장, 한양대 겸임교수

☎ 02-571-1195, sjchoi@kice.re.kr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 (사)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본부장,
-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등

<현재>

- 국제환경교육연구소장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빙연구위원
- 환경보전협회 이사
-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

환경문제 해결 대책은?

단순한 환경보전 이상으로 쾌적한 환경의 질(質) 향상과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먼저, 환경 법 및 제도적인 접근으로서, 여러 가지 법과 기관 및 조직을 만들어 이들을 통해서 규제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매우 빠

르고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정책 수립자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도 환경 관련 법들이 환경부 소관만도 약 40가지이고,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것도 많다. 이렇게 많은 법들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더 많은 법들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환경 관련 조직으로 환경부가 발족되었지만, 더 많고 큰 조직을 계속 요구하고, 다른 기관들에서도 환경 관련 조직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법과 조직들로 인한 부담도 크다.

다음으로, 환경과학·기술적인 접근이다. 환경오염문제들을 새로운 과학과 기술로 감소 및 해결하는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 유망한 분야로 흔히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 IT)과 생명공학 기술(Biology Technology : BT) 그리고 환경과학 기술(Environment Technology : ET)을 포함 하듯이, ET는 앞으로 더욱 중요하고 발전해야 할 분야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모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의 과학 기술이 한계가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이라도 등장할 때에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는 인간에게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DDT를 비롯하여 현대의 첨단 기기에서도 그런 예를 무수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새 것을 들여왔을 때 소위 '동티' 라는 것을 주의해 왔다. 결정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과학 기술이, 환경문제가 발생하여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소위 '사후 처리(End of pipe)' 방식이라는 점이다.

끝으로, 환경교육과 홍보를 통하는 것이다. 교육과 홍보는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전 예방

적이고 적은 경비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거의 없고 상승(synergy)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그런데, 환경교육은 환경문제 대책으로서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신속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가 적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은 알지만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흔히 '교육은 중요하지만 당장 예산이 없다' 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일례로, 쓰레기 처리 경비로 약 50억원을 투자하는 경우와 교육에 그만큼의 경비를 투자할 경우의 효과를 측정해 보면 어떻게 될까? 교육은 일회성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단기간에 1회로 모든 교육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노력과 투자로 교육을 받았는가?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환경교육의 필요성은 먼저,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가 인간 중심으로 환경을 이용 개발하여 환경문제를 계속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들의 환경관을 지금까지 보편화된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나 기술지향주의(techno-centrism)에서 생태지향주의(eco-centrism)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각각의 인간 활동에 의한 결과들이 누적되어서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원인 및 대책을 파악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NIMBY 현상에 대하여 바르게 파악한다면 그 대책을 보다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환경문제의 원인과 대책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

고 대처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현직교육(in-service training)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체험환경 활동으로 자주 소개하는, '폐식용유로 재생비누 만들기' 활동의 경우, 요즘에는 폐식용유를 응고시켜 비누로 만들어 사용하면, 버리는 물건의 재생 효과는 있지만 폐식용유의 유해성분이 물로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요즘에는 이 활동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환경교육의 주요 내용은 전통적으로,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 환경문제¹⁾의 원인, 여러 환경문제의 원인·현상·대책, 환경보전 방법등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여기에, 환경라운드(green round :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동향의 이해), 지속가능발전, 소비, 식품, 교통, 마약, 환경윤리, 대안적인 삶 등을 포함하며, 특히 전의 환경공학적 문제의 파악 중심에서 환경윤리 등 인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어떤 것인가?

환경문제가 심각화되면서, 우리는 살아남아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점차 커진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이란 용어는, 1970년대 이후 인류의 무분별한 성장 위주 정책을 경고하면서 이 의미를 사용하고, 그 후 여러 모임에서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2년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이 용어의 개념과 더불어 인류가 나아갈 21세기를 위한 과제로 '의제(Agenda 21)'을 제시하고 세계 각국이 지켜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는 '건전한 환경보전을 전제로 하는 지속적인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1) 환경(오염)문제를 전에는 흔히 '공해(Kogai)' 라고 했는데, 공해는 일본에서 미나마타병과 이타이이타이병 등이 발생하면서 생긴 조어(造語)로서 주로 오염 현상과 질병 중심으로 사용하여, 요즘에는 이 말보다는 종합적인 '환경(오염)문제'로 사용한다.

Development: ESSD. 최근에는 줄여서 SD로 사용)에서 줄여진 말로서, 한마디로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되 환경보전이 전제되어야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UN과 UNESCO는 ESSD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의 힘을 특히 강조하면서, 2005년 초에 유엔 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ESD) 이행 10년 : 2005 ~ 2014년"을 선포하고, 세계 각국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²⁾ 유네스코의 이 자료에서는 교육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교육은 지구적 규모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의 능력과 책임에 대한 신념을 고취하며, 지속가능발전의 의의를 실제 상황과 사회 속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1차적인 요인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에서 요구되는 가치, 행동, 삶의 양식 등을 공고히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자료에는 ESD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인권, 평화와 인류의 안전, 양성 평등(gender equality), 문화적 다양성과 이해, 건강, 성병(AIDS 등), 협치(governance).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천연자원, 기후변화, 농촌의 변화, 지속가능한 도시화, 재해의 예방 및 감소화. 경제적으로는 빈곤의 감소, 책무성, 시장경제 등이다. 환경교육에서 비롯된 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제 3세계 문제 등 세계적인 쟁점을 포괄하여 매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³⁾)에서는 이러한 유네스코의 개념 정의에 대하여, 우리 실정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지속위, 2006) 사회·정치·문화적 관점으로는, 인권·평화, 문화적 다양성, 사회정의, 안전, 건강·식품, 거버넌스·시민참여, 양성 평등, 소양(매체, ICT), 세계화·그리고, 환경적 관점으로는

자연자원(물·공기, 토양 등), 에너지,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촌락 도시, 재해 예방 및 저감, 교통. 또, 경제적 관점으로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기업의 지속가능성, 시장 경제, 빈부격차 완화 등이다.

유네스코 자료는 이 교육의 추진은 학교 등을 통한 형식교육(formal education)과 여러 가지 사회 교육을 통한 비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은 물론, 나아가 교육을 초월(beyond education)하여 민간단체(NGO) 활동과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라면 비영리 조직(Non-profit organization : NPO)과 영리조직(profit organization : PO) 까지 올바른 활용 등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으로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의 과제는?

환경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변화 발전하면서, 그 내용 범위와 방법 등이 근래에 많이 변화하고 있다. 환경보전문제는 이미 지구적 차원의 과제로서 교육도 그에 따라서 변화 발전되면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우리의 바람직한 미래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환경문제와 환경교육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착실히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할 때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우리 국민은 환경문제와 교육문제는 대표적 큰 관심사이고 전문가인 것 같으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 어려운 '환경'과 '교육'이 결합한 '환경교육'은 최고 난도의 과제인 것은 분명하고, 또한 우리에게 환경문제와 교육문제는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실천 주체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각자가 앞장서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 효과가 배가된다는 점이다.

2) UNESCO(2005).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Draft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Scheme, NY.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노력에 착수하였다.

3) 지속위, 2006, '주5일제 대비 교육과정 개정시안' 검토 의견 자료